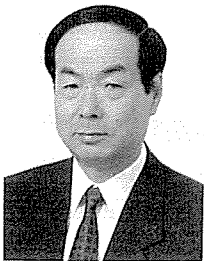


세계는 지금 산업혁명이후 새로운 전환시대를 맞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의 기초부문을 소홀히 한채 외형적인 고도성장에만 치중했던 우리는 세계일류를 목표로 개개인의 창의력을 장려하고 창조적인 공동체의식을 살려야 하겠다.



韓萬靑
(서울대학병원장)

탈냉전 이후 세계는 바야흐로 기술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장장 7년간 계속되어 온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은 올해부터 세계의 자유무역체제를 주도할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내에서 앞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질 환경라운드(Green Round), 노동라운드(Blue Round), 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 등은 과학기술력이 뒤쳐진 나라의 기술경쟁력이 더이상 자라나지 못하게끔 하는 족쇄의 역할을 할 것이어서 재기의 기회마저 갖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있는 것이다.

그간 세계의 여건은 급격하게 바뀌어 과거에 손쉽게 기술을 제공해 주던 우방들도 이제는 기술제공을 꺼리고 있으며 과거에는 무단으로 생산 활용하던 내용들도 물질, 특허, 지적 재산권 등에 묶여 생산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거나 비싼 로열티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가는 형편이다. 이제는 더이상 기댈 수 있는 우방도 외국기술도 없으며, 앞으로 우리 산업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의 실력과 노력에 의해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실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기술전쟁시대 승부는 장인정신에 달렸다

정신적인 대전환작업 필요

따라서 이러한 신세계 질서개편의 때에,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생존의 기틀을 한치라도 더 높이 쌓고자 하는 노력이 국가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과학기술력의 수준은 어떠한가? 과학기술이라는 무기로 신세계질서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소리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민족의 생존과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동안 우리는 과학기술발전의 기초부문을 소홀히 한채 외형적인 고도 성장에만 치중해 왔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초로는 날로 비대화·고도화 되어가는 우리 산업의 규모나 구조를 더 이상 받쳐줄 수 없는 한계점에 다가와

제껏 외부에서 갖다 쓰던 과학기술이라는 열매를 우리 내부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여 거두려면, 우선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토양자체가 과학기술의 육성발전에 적합하도록 개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는 우리의 능동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혁명에 의해 비롯된 세계변화의 물결은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고, 이 세계변화의 물결 앞에서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민족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족적인 잠재능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낡은 습성은 과감히 탈피하기 위한 정신적인 대전환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함께 '신바람' 정신 개발을

한국사회정신문화의 기층에는 마을단위의 농경문화적 공동체의식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우리나라가 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바 크거니와 앞으로 이러한 '신바람' 정신을 잘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제2의 과학기술도약을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신문화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식의 소극적인 경향은 국제화, 개방화, 일류화를 추구하며 전 국민적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의 공동체의식은 세계와 미래에 대하여 도전적인 자세를 갖는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과거의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일류를 지향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의 내일을 위해 전진한다는 의식이 심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 현재의 상태와 약점을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장려하고 발전시켜 내일의 발전을 위한 거름으로 삼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공동체정신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계가 지구촌화 되어가는 현재에 맞추어 공동체의식의 범위도 넓혀져야 하겠다. 세계적인 기술전쟁에 직면하여 골리앗과 같은 선진국들과 맞서 경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의 생존번영과 민족적 자존심을 위하여 소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아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더 큰 공동체를 위해 합심단결하는 슬기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하겠다. 매스컴에 자주 보여지는 기업간의 소비적인 과다경쟁과 비신사적인 흠집내기 경쟁이 우리사회

에서 하루빨리 추방되고 더이상 그와 같은 광고는 엄두조차 낼 수 없게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적인 연구협력교류가 일반화되는 이때에 우리는 협력에 의한 우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인들과도 기꺼이 마음을 열고 인간적인 우의를 나눌 줄 아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한번 맡은 일엔 신명을 바쳐

우리 정신문화에 있어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다른 하나는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주의이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습득과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도외시한 채 책상에 앉아 고압적인 자세와 펜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하는 관료주의의 풍토하에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다. 또한 우리는 자기 일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프로 정신이 부족하다.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사후 관리조차 소홀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발뺌이나 하는 모습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과학의 기본정신은 실험과 탐구정신이며, 기술자의 기본자세는 한번 맡은 일은 신명을 바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명예를 걸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장인정신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주의와 같은 나쁜 습성은 하루빨리 뽑아버려야 할 것이다.

미래는 빼앗는 자의 것이다. 각국은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혁명에 의해 비롯된 새로운 세계변화를 예측하고 새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위해 치밀하

고 방대한 계획수립과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정확한 현실파악에 근거한 미래예측과 이를 기초로 한 목표 설정,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현실성있는 계획수립과 착실한 진행이 우리 삶의 일상에 자리잡아야 하겠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준비와 투자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세계는 지금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전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혁명, 범세계성 등으로 대변되는 이 새로운 세계변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위기와 함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은행협회는 2005년의 한국은 국제경쟁력에서 세계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매우 희망적인 전망을 하였다. 통일 한국의 경제권 범위는 남북한 뿐만 아니라 홍콩강성, 요령성, 길림성 등 중국의 동북부 3성을 포함한 1억6천만명 정도에 미쳐 세계10위권 이내의 경제력을 갖게 되리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세계변화에 대한 대처와 미래에 대한 준비없이 이러한 전망이 막연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예로부터 측우기와 금속활자 인쇄, 거북선 발명 등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과 창의성의 저력이 있는 우리 민족이다. 가깝게는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부터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어 낸 결집력이 우리에게 있다.

전환시대 세계변화의 도전앞에 우리는 국민적인 잠재성의 결집과 미래지향적인 의식전환의 노력으로 응전함으로써 신세계질서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잡아 염원하는 바, 환태평양시대에 기술정보의 중심국역할을 다하는 소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㉞